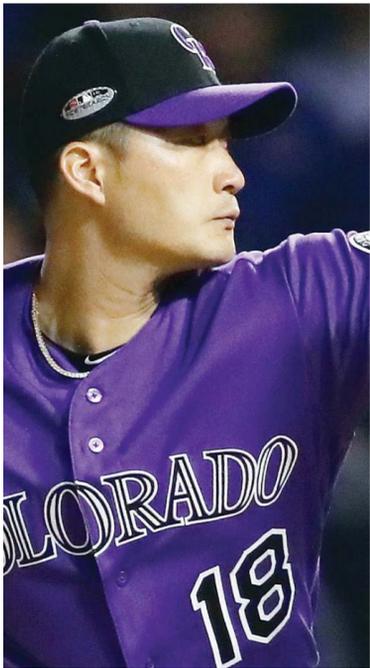


MLB 가을야구 볼 맛 나네



오승환, 한·미·일 PS 출전

컵스와 NL 와일드카드 결정전 1.2이닝 무실점

오승환(콜로라도 로키스)이 생애 첫 메이저리그 포스트시즌 무대를 무실점 투구로 장식했다.

오승환은 3일 열린 시카고 컵스와 2018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포스트시즌 내셔널리그 와일드카드 결정전에서 1-1로 맞선 연장 10회말 등판, 1.2이닝 동안 피안타 없이 볼넷 2개를 내주고 탈삼진 1개를 잡으며 무실점했다.

오승환이 팽팽한 연장 상황을 무실점으로 지탱한 이후 콜로라도가 연장 13회초 추가점을 내면서 컵스를 2-1로 꺾었다.

내셔널리그 디비전시리즈(NLDS) 진출권이 걸린 와일드카드 단판 승부에서 승리한 콜로라도는 내셔널리그 중부지구 1위 밀워키 브루어스와 5일부터 5전 3승제 NLDS를 벌인다.

오승환은 이날 경기로 한국인 최초 한미일 프로야구 포스트시즌 출전 기록을 완성했다.

/연합뉴스

1선발, 커쇼 보다 류현진

내일 애틀랜타전 출전...4년만에 가을잔치 마운드

'가을 승부사' 류현진이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의 포스트시즌 첫 경기 선발투수로 출격한다.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공식 홈페이지 MLB닷컴은 3일 다저스가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와 벌이는 내셔널리그 디비전시리즈(NLDS) 1차전 선발투수로 좌완 류현진을, 2차전엔 클레이턴 커쇼를 차례로 내세운다고 보도했다.

다저스는 오는 5·6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스타디움에서 열리는 5전 3승제 NLDS 1·2차전에서 애틀랜타와 맞붙는다.

당초 다저스는 NLDS 1차전 선발로 사이영상 3회 수상자인 '에이스' 커쇼를 올릴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정규시즌 마지막 3차례 등판에서 모두 퀄리티스타트(선발 6이닝 이상 3자책 이하)로 호투하며 3연승을 달리고 팀의 지구 우승에 발판을 놓은 류현진의 가을 기세에 커쇼가 1선발 자리를 양보하게 됐다.

류현진은 2014년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와의 NLDS 이래 4년 만에 가을 잔치 마운드에 선다.

/연합뉴스



갈 길 바쁜 KIA 부상 악몽



양현종

양현종 허리통증 조기 강판

삼성에 5-20 대패 1게임차 쫓겨

오늘 SK전 한승혁 선발

갈 길 바쁜 KIA 타이거즈 앞에 부상 악몽이 찾아왔다.

KIA 타이거즈가 3일 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린 삼성 라이온즈와의 시즌 최종전에서 5-20, 대패를 당했다.

전날 연장 승부에도 승리를 가져오지 못했던 KIA는 두 경기 연속 치명적인 패배를 기록했다. 양현종의 부상이라는 치명적인 악재까지 찾아오면서 '가을 잔치'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날 패배로 KIA는 6위 삼성에 1경기 차 추격을 받게 됐다. 다행히 7위 롯데 자이언츠와 LG 트윈스는 나란히 패하면서 두 팀의 격차는 각각 2.5경기, 3경기 차로 좁혀지지 않았다.

양현종의 출발은 좋았다. 1회말 첫타자 박해민을 헛스윙 삼진으로 돌려세운 양현종은 김상수의 땅볼 타구를 직접 처리했다. 구자욱에게 우전 안타는 맞았지만 러프를 3루수 땅볼로 잡아내며 1회

를 끝냈다.

이원석에게 선두타자 안타를 내준 2회에는 강민호를 헛스윙 삼진에 이어 김현권의 유격수 앞 타구로 아웃카운트 두 개를 동시에 울리며 2회를 마무리했다.

하지만 3회 이상 조짐이 보였다.

유재신의 2타점 2루타로 2-0으로 앞선 3회말 양현종이 선두타자 최영진에게 2구째 던진 직구를 공략당하면서 솔로포를 허용했다. 손우인을 삼진으로 돌려세웠지만 박해민에게 2루타를 내줬다. 김상수의 유격수 땅볼로 한숨을 돌리는 것 같았지만 구자욱과 러프의 연속 안타가 나오면서 2-2가 됐다.

그리고 3회 2사 1·3루에서 이원석에게 던진 144km짜리 직구가 좌측 담장을 넘어가면서 순식간에 2-5까지 벌어졌다.

실상가상 양현종은 홈런을 맞은 뒤 우측 옆구리를 붙잡았다. 잠시 상태를 점검한 양현종이 대타 이지영을 삼진으로 처리하면서 3회까지 책임졌지만, 다음 이닝에는 황인준이 마운드에 올랐다.

우측 옆구리 통증을 호소한 양현종은 4일 광주에서 정밀 검진을 받을 예정이다. 앞서 이명기도 우측 허벅지 통증으로 2회 수비 때 유재신으로 교체되는 등 부상이 겹쳤다.

에이스가 피흘린 두 방과 갑작스러운 부상으로 일찍 물러난 뒤 경기는 삼성의 일방적인 흐름이었다.

양현종에 이어 황인준-박정수-박경태가 나란히 마운드에 올랐지만 불발은 삼성의 타선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KIA는 5회 대거 11실점을 하는 등 무려 20점을 내줬다. 이는 올 시즌 삼성이 가지고 있던 최다 득점(16) 기록을 넘어서는 점수였다. 지난 2016년 라이온즈 파크 개장 후 최다 득점 기록이기도 하다.

KIA는 앞선 2일에도 NC 다이노스에게 악몽 같은 패배를 기록했다. 9회말 1사에서 타진 김선빈의 동점 솔로포로 연장 승부에 돌입, 10회말 무사 만루의 기회도 잡았지만 5-6 재역전패를 당했다.

필승조 김운동, 마무리 윤석민까지 투입하고도 NC에 승리를 헌납한 KIA는 3일에는 양현종의 부상으로 불펜을 일찍 가동하며 어려움을 겪었다.

마운드 고민은 계속된다. 4일에는 기복 많은 한승혁이 SK전 선발로 나선다. 9월 25일 kt전에서 5이닝 1실점(비자책점)으로 승리투수가 되면서 기대를 모았던 한승혁은 지난 30일 한화전에서 2.1이닝(3자책점)만 소화한 뒤 물러났었다. 4일 만에 다시 출격하지만 팀 분위기와 불펜 상황이 좋지 않다. /대구=김여울 기자 wool@

여자골프 기선잡아라

오늘부터 인터내셔널 크라운

박성현-김인경, 대만과 첫 경기

여자골프 국가대항전인 UL 인터내셔널 크라운에서 첫 우승을 노리는 한국 대표팀이 박성현-김인경과 유소연-전인지 조로 첫날 경기를 치른다.

올해 인터내셔널 크라운은 4일부터 나흘간 인천 쉼니클라우스 골프클럽 코리아에서 펼쳐진다.

대만, 호주, 잉글랜드와 A조에 편성된 우리나라는 4일 대만과 경기를 시작으로 5일 호주, 6일 잉글랜드와 차례로 맞붙는다.

조별리그 경기는 2인 1조의 포블(두 명이 각자의 공으로 경기해 더 좋은 성적을 그 팀의 점수로 삼는 방식) 매치 플레이로 진행된다.

B조는 미국, 일본, 대만, 스웨덴으로 구성됐으며 각 조 상위 2개국이 최종일 싱글 매치플레이 경기에 진출한다.

또 A조와 B조 3위 팀은 와일드카드 결정전을 치러 이긴 나라가 최종일 경기에 합류하는 방식이다.

한국은 4일 오전 10시 45분 박성현-김인경 조가 대만의 캔디 킵-피비 아오 조를 먼저 상대하고 이어 오전 11시부터는 유소연-전인지 조가 테레사 루-쉬웨이링 조와 맞붙는다. 5일 호주와 경기에는 다른 조합을 구성해 경기에 나설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4년 1회 대회에서 3위, 2016년 2회 대회에서 2위를 각각 기록했다.

앞선 두 대회는 모두 미국에서 열렸으며 한국에서 처음 열리는 올해 대회에서 우리나라는 첫 우승에 도전한다. /연합뉴스

배상문 시즌 첫 승 도전

오늘부터 PGA 셰이프웨이 오픈

미켈슨과 1·2 라운드 동반플레이

배상문(32)이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2018-2019시즌 개막전에서 미국의 베테랑 필 미켈슨(48)과 함께 1, 2라운드를 치르게 됐다.

4일부터 나흘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내파벨리의 실버라도 리조트 앤드 스파 노스(파72-7203야드)에서 열리는 PGA 투어 셰이프웨이 오픈(총상금 640만 달러)은 2018-2019시즌의 첫 대회다.

3일 발표된 이번 대회 1, 2라운드 조 편성을 보면 배상문은 미켈슨, 브랜던 스틸(미국)과 함께 경기를 치르게 됐다.

첫날 경기 시작은 5일 오전 4시 30분(한국시간) 1번 홀 티오프다.

배상문은 지난달 2부 투어인 웨트컴 투어 보이시 오픈에서 우승하며 2018-2019시즌 PGA 투어에서 안정적인 활약을 자처했다.

미켈슨은 1일 끝난 유럽과 대항전 라이더컵에서 2전 전패를 당해 최근 내림세를 보인다.

이번 대회에는 배상문 외에 강성훈, 김민휘, 임성재, 이경훈이 출전한다.

특히 김민휘와 임성재는 채드 폴링스(미국)와 함께 1, 2라운드를 함께 치른다.

교포 선수로는 제임스 한, 마이클 김, 존 허(이상 미국), 대니 리(뉴질랜드)가 시즌 개막전에 모습을 보인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덕아웃 T 톡톡

▲괜찮아요. 정수 와요 = 3일 삼성전에 앞서 진행된 훈련. 김운동이 '딱내'가 되어 물을 쟁겼다. 전날 선발로 등판한 전상현이 1이닝 5피안타 1볼넷 3실점으로 부진하면서 엔트리에서 말소됐고, 김운동이 투수조 막내가 된 것이다. "물 심부름 하느냐?"는 이야기에 김운동은 "괜찮아요. (박)정수 와요"라고 웃으며 물을 쟁겨갔다. KIA는 전상현을 대신해 이날 박정수를 엔트리에 등록시켰다. 박정수는 전날 경기가 끝난 뒤 이동한 선수단과 따로 이날 오전 대구로 이동, 훈련에 참여했다. 하지만 이날 4월 28일 이후 5달여 만에 1군 경기에 출전한 박정수는 1이닝 6피안타 2볼넷 3탈삼진 7실점의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다른 곳으로 가서 맞으니 = 안치홍은 3일 경기 전 "괜찮냐?"는 질문을 받았다. 안치홍은 전날 NC와의 경기에서 왼쪽 팔꿈치와 등 부위에 2차례나 공에 맞으면서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안치홍은 시퍼렇게 멍이 든 팔을 보이면서 "가드를 했는데 그 위로 가서 맞았다. 어게 쪽도 불편하다"며 아픈 표정을 지었다. 안치홍

연장전 패배에 장거리 이동...“몸도 마음도 피곤해요”

은 3일에는 두 타석에서 1루수 땅볼과 삼진만 기록한 뒤 대수비 총재호로 교체됐다.

▲2타점 좋았어 = 누구보다 대구로 향하는 걸음이 무거웠을 유민상. KIA는 지난 2일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NC와의 시즌 최종전에서 연장 11회 승부 끝에 5-6으로 졌다. 4-5로 뒤진 9회말 1사에서 나온 김선빈의 동점포로 연장으로 향했던 승부. KIA는 10회말 무사 만루의 끝내기 기회를 놓치면서 승리를 내줬다. 이 패배의 불명예스러운 주인공은 유민상이었다. 무사 만루서 유재신의 대타로 타석에 선 유민상은 3볼 1스트라이크에서 타격을 했지만 공이 유격수 앞으로 향했고, 홈에 들어오던 주자와 타자 주자가 동시에 아웃되고 말았다.

이범호의 고의 사구 후 타석에서 선 한승택도 투수 땅볼로 물러나면서 흐름을 내준 KIA는 결국 5-6으로 졌다. 김기태 감독은 3일 덕아웃에서 유민상을 마주하자 "2타점 좋았어"라고 웃은 뒤 "자신 있게 웃으면서 하라"며 주먹 인사를 내놨다. 동료들도 농담으

로 유민상 '기 살리기'에 나섰다. 공을 즐기 위해 덕아웃에 대기하고 있던 젊은 투수진은 "민상이 형이 말을 잃었다는 소문이 있더라", "감독님은 보았냐?", "플라운트까지 기다리지 그랬냐"는 말을 하면서 유민상과 사담들을 웃겼다.

▲몸도 마음도 피곤해요 = KIA 선수단에는 몸도 마음도 피곤한 이들이었다. KIA는 지난 2일 NC와의 시즌 최종전을 4시간 31분 동안 치렀다. 연장 10회 무사 만루, 11회 무사 1루의 기회를 살리지 못한 KIA는 씁쓸한 패배를 안고 대구행 버스에 올랐다. 3일 오전 2시 30분이 다 되어 대구에 도착한 선수들은 일찍 하루를 시작해야 했다. 이날 경기가 오후 2시 경기로 치러진 탓이다. 김민우 수비 코치는 3일 컨디션은 물론 취재진의 말에 "몸도 마음도 피곤하다"며 씁쓸하게 웃었다. 이들에게는 피로를 풀어 줄 승리라는 비타민도 없었다. 삼성과의 최종전에서 5-20 대패를 당한 KIA는 4일 시작되는 SK와의 3연전을 위해 다시 먼 길을 떠났다.

/대구=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